

'윤창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

최저형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 수정 오늘 열리는 본회의 통과되면 즉시 시행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의 핵심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다만 담초 발의했던 최저 형량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5년 이상'이 아닌 '3년 이상'으로 수정됐다.

법사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특가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윤창호법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건을 계기로 논의된 법안이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해당된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가법 개정안은 앞서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중 하나가 아닌 법안제1소위에서 합의를 통해 도출한 수정안이다.

수정안은 술이나 약물에 의해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역시 현행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화됐다.

하지만 윤창호씨 친구를 포함, 일각에서는 최저 형량이 의원발의에 포함됐던 '5년 이상'이 아닌 '3년 이

상'으로 수정된 것에 대해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특가법 개정안 통과 전 이뤄진 의원들 간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목소리가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소위에서 논의한 결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초안보다 다소 낮은 형량으로 결정됐다"며 "왜 3년으로 결정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하지만 치사죄의 경우 사망이라는 것을 과실범위가 명확하고 형법체계에서 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상해치사죄 등의 경우 처우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치사죄의 형량이 유기치사죄의 형량에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가

2016년 최초 발의했던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원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었다"면서도 "송 의원 말대로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죄와 비교할 필요도 있고 음주 사망사고의 범죄 유형이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봐야한다. 그래서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할 때는 무기징역까지 법정형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어떤 사람이 전날 음주를 했는데 하루 자고 나서 오전 출근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났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한계치인 0.05정도 나왔다. 본인은 음주운전이라 생각하지 않고 출근한 것일 텐데 이 경우에도 5년 이상 징역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며 "국민적 법감정도 수용할 수 있으려면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부연했다.

특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수도계량기 동파 대책 추진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내달 12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상황실 운영... 24시간 신속 대응체계 가동 등 시민 불편 제로화

전주시는 올 겨울 강추위에 대비해 시민들이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도계량기 동파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휴일 없이 24시간 겨울철 동파관리 상황실을 운영, 계량기 동파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기 전에는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해 언론과 SNS, 시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동파방지요령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오는 12월 중순까지 검침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동파예방요령을 안내한 전단지 4만매와 보온용 비닐커버 3만매를 제작·배부기로 했다.

특히, 기존 급강하(영하7C 이하)가 예상 될 때에는 사전예방 조치로 과거 동파가 발생했던 세대를 중심으로 동파 취약 세대 약 2,000세대를 대상으로

동파 예방 안내문을 SNS를 발송하는 등 사전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나아가, 저소득 세대 중 동파에 취약한 약 500세대에 대해서는 맑은물봉사단(화장 소원국)과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직원들이 직접 계량기실 내부에 보온재와 동파방지 보온팩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걱정없이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행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일일 수도계량기 동파발생 개수에 따른 단계별 비상복구체계를 마련하고, 동파사고 등 비상 시에는 급수공사 대행업체 12개사의 협조를 얻어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신속하게 교체해줄 계획이다.

권혁신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계량기 동파 신속 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12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계량기 동파관리 상황실을 운영해 휴일 구분 없이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 토론회.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토론회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회 공공성 6대 요구 성과와 과제'가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발제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건물생심'...떨어진 손가방 농고간 돈 '슬쩍' 잇따라

건물생심에 떨어진 가방과 농고간 돈을 가져간 남성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8일 주차장에 떨어진 손가방을 가져간 혐의(점유이탈물 횡령)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2분께 군산시의 한 식자재마트 앞 주차장에서 현금 4만원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을 주위 그대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손가방 안에 있던 현금만 챙기고 가방은 우체통에 넣었다.

익산경찰서도 이날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농고간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B(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3시47분께 익산 시내 한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농고간 현금 2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원인 B씨는 불의를 보기 위해 우체국에 방문했다가 투입구에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 자신의 지갑에 넣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돈을 보고 욕심이 나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인출한 뒤에는 잊지 말고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둔 현금 등을 꼭 챙겨서 나가야 한다"면서 "순간적인 욕심에 일반 시민들도 절도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

전북청소년영화제 '다음에 봐요'

성황리 폐막 49편 작품 상영 우수작 대상 시상과 병행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주시내 마더운에서 열린 '제12회 전북청소년영화제'가 영화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환호와 박수를 뒤로 하고 막을 내렸다. <관련기사 12면>

전북청소년영화제의 올해 슬로건은 '너랑 나랑, 우리'로 청소년의 영화에 대한 꿈과 미래를 함께 찾고 소통하는 발전의 장으로 마련됐다.

개막작은 장은연 감독이 연출한 '소년, 소녀를 만나다'로 2020년 통일 준비를 위해 남·북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홈스테이가 시행된 후 북한 하진이 남한의 섬 소년 우연이의 집으로 오게된 소년, 소녀의 뜻뜻한 첫사랑을 그린 영화다.

영화제는 본선에 진출한 초·중·고·대학생 작품 12편, 중학생 10편, 고등학생 16편 총 38편의 작품과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수상작 5편, 2018 전북청소년영화제 결과작품 5편을 초청하여 총 49편을 상영했다.

진영기 심사위원장은 "수상작 선정

에 있어 작품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이야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고민과 시선이 느껴지는 작품을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대상인 전라북도교육감상은 순창제일고 주현이 연출한 '무감각'이 차지했고 금상에는 '내뿜내뿜(완산골지역아동센터 김민혁 신취수 김태민), '백영지'(전주효묘여중 김주미), '지우다'(전주여고 홍소희), 은상에는 '스마트폰 대탈출(김제항강초 이유림), '선율작곡법(김제지령선중 서기영), '나, 너 그리고 우리'(강호항공고 이찬진), 동상으로는 '우렁이의 진심'(이리팔봉초 소지영), '김밥말기 좋은 날'(완주고산중 김다하 정혁규 김광연), '동무'(장승고 김승호)가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순창제일고등학교 주현은 고1때 전북청소년영화제에서 '좋은날'을 연출 하는 등 전북청소년영화제에 자원활동가로 활동했다. 이번 영화제는 폐막작으로 대상을 차지한 '무감각'을 상영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송효철 기자

다가구 주택에도 상세주소 부여

전주시,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수 표기

전주시가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다가구 주택에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수가 표기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시는 주소지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 우편물 오배송과 분실 사고 등의 불편을 겪어온 다가구주택 거주민을 위해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을 하

방기에 총 1,000여건을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다가구·다중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상세주소(동·층·호)를 간편히 지정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맞춤형 상세주소 부여 신청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시는 다가구 밀집지역인 서부신시가지 내 문화대·황강서원·배학블록과 고사평·서곡·가리내 블록 등 총 703개 건물에 대해 기초조사를 하고 주소사용자인 소유자와 임차인 3,548명에게 개별 고지문을 발송한 후 법적 주소화를 위한 고시까지 마쳤다.

시는 내년에는 다가구 밀집지역뿐 아니라,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확대하는 등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